

# 결혼 초기 기혼 남녀의 사회 네트워크와 일·가족 전이의 관계

이 유 선(동국대 석사과정) · 전 미 경(동국대 부교수)

본 연구는 ‘일’과 ‘가족’ 두 영역을 오가며 개인이자 직장인이며 동시에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다중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결혼 초기 유자녀 취업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둘러싼 사회 네트워크의 특성과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일에서 가족으로의 부정적/긍정적 전이 수준 및 가족에서 일로의 부정적/긍정적 전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일·가족 전이(spillover)는 직업생활 또는 가정생활 중 한 영역에서의 행동이나 감정이 다른 한 영역 쪽으로 흘러들어가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뜻하는 것으로, 결혼 초기 유자녀 취업부부의 경우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노력과 동시에 전적으로 돌봄이 요구되는 어린 자녀의 양육, 일과 가족의 병행 등으로 인한 제한된 상황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일·가족 전이 수준의 상호 긍정적 균형 유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효과, 즉 사회 네트워크의 특성이나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긍정적 전이 수준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 부정적 전이 수준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는 봄으로써 그들의 상황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문제를 가족의 역량이 아닌 사회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 5년 미만의 유자녀 취업남녀 242명(남성119명, 여성123명)이며, 측정도구로는 일·가족 전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미국의 MIDUS(National Survey of Midlife Development) 척도의 번안본과, 사회 네트워크를 조사를 위한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설문자료 중 국제사회조사연합의 ‘사회연결망’ 모듈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8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중다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혼남녀의 사회 네트워크 및 일·가족 전이 수준의 전반적 경향에 있어 성차를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의 크기는 남성의 가족 네트워크와 친구나 이웃 또는 동료 네트워크 크기가 여성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접촉 방식에 있어서는 대면접촉빈도와 비대면접촉빈도 모두에서 유의한 성차를 보이지 않았으며, 사회적 지원의 정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기혼남녀의 일-가족 전이 수준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일에서 가족으로의 부정적 전이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기혼남녀의 사회 네트워크가 일·가족 전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일에서 가족으로의 부정적 전이 수준은 가족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완화되었고, 여성의 경우 앞서서와 같이 남성보다 일에서 가족으로의 부정적 전이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관련 변수는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일에서 가족으로의 긍정적 전이 수준은 가족 네트워크 크기가 클수록, 친구 및 이웃 또는 동료의 네트워크 크기가 클수록, 비대면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경제적 지원의 정도가 많을수록 높아졌으나, 남성의 경우는 유의미한 변수가 드러나지 않았다. 남성의 가족에서 일로의 부정적 전이는 가족 네트워크의 크기가 작을수록, 비대면 접촉빈도가 적을수록, 정서적 지원의 정도가 낮을수록 높아졌고, 여성의 경우 정서적 지원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가족에서 일로의 긍정적 전이의 경우 친척 네트워크의 크기가 작을수록, 친구 네트워크의 크기가 클수록, 대면 접촉빈도가 적을수록, 비대면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경제적 지원의 정도가 많을수록 높아졌고, 여성의 경우 대면접촉빈도가 적을수록, 경제적 지원의 정도가 많을수록, 서비스 지원의 정도가 높을수록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결혼 초기 유자녀 취업남녀의 사회 네트워크를 사적인 혹은 공적인 방식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구성한다면 그들의 일과 가족을 둘러싼 행동적·감정적 전이 수준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상황과 관련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의 일정 부분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